

공영흡소핑, 개국 3주년 맞아 공익기능 강화 나서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 판매로 소비자 신뢰 확보 최저 수준 낮은 판매수수료율(23% → 20%) 혜택 중소기업 소상공인·농어민에게 돌려줘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2015년 7월 TV흡소핑으로 출범한 공영흡소핑은 개국 3주년을 맞아 공익기능 강화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영흡소핑이 지난 3년의 운영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판로확대와 함께 소비자 신뢰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흡소핑은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농어민에 대한 판로 지원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산 제품만을 취급할 계획이다. 또한 첫걸음 기업과 기술혁신 기업에 판로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능 품질 디자인 등을 개선한 창의혁신제품 판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장성이 있는 우수 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생산 기술 유통'을 일관지침함으로 '중소기업 명품'으로 육성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저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농어민에게 환원하며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팔아 이익을 내는 역발상 전략으로 평균 수수료율을 최저수준 20%(중전 23%)로 대폭 낮췄다. 이는 6개 일반 흡소핑사 평균 33.4% 대비 약 13%p 낮은 수준이며 흡소핑업

계의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역기업 등에게 TV흡소핑 판매 홍보기회를 제공, 권역별 상품개발자(MD) 전담제를 실시하여 지역상품 편성비중(2017. 35% → 2022. 45%)을 확대하는 한편, 10인 미만 소상공인 특별 판매홍보전(18. 40개사), 위기관리지역 특별판매전 개최와 함께 당장 흡소핑 판매가 어려운 제품에 대한 20~40초 무료 토막광고(연 80개 제품, 1,600회)사업도 실시한다. 이 뿐만 아니라, 업계의 불합리한 유통 관행 개선에도 앞장선다. TV흡소핑-벤더의 거래계약은 납품기업이

불리한 고질적인 문제로, 벤더 거래시 '납품대금 수령인'을 생산기업으로 개선하고, 벤더 없는 '직거래 비중' 17. 41% → 18. 50%'을 확대해 나간 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공영 흡소핑의 제도적 선연에서 담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한 조치와 흡소핑 거래 투명화 조치들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며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수출지원센터 이진만 연구사 063-210-6481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열차 안전운행 위해 '구슬땀'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진준)가 폭염으로 인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열차운행 선로를 관리하는 시설분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레일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취약구간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있다. 또 선로온도를 측정해 열차의 안전운행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선로 레일 온도를 약 5°C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차열페인트 도색, 살수 작업 등 선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점검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 전북본부 차량분야는 폭염 속에 열차의 냉방장치 과부하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방장치 전담IT팀을 꾸려 출발열차의 출고 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문 기술 인력을 열차에 함께 태워 보내는 등 냉방장치 고장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롯데백 전주점 - 전북경찰청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단' 구축 업무협약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8일, 전북경찰청과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단' 구축으로 유기적인 협력 및 상호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장, 전북 경찰청장을 비롯해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단'을 구축, 롯데백화점 사회공헌사업과의 맞춤형 연계로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복귀지원 등과 갑질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백화점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장 조환섭은 "사회적 약자 및 여성감정노동자 보호는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관계 있는 모든 산업계가 동참해야 하는 질체질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른 사회적응에서도 범죄 피해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완주군 이서면에 'JB희망의 공부방 제73호' 오픈

아동들이 편리하게 생활·환경개선 필요 지원 대상 선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8일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이서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서영 부행장, 김용우 완주군청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완주군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이서지역아동센터 윤신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서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개소 후 주변일대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 노후화된 시설물

을 교체하고 아동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새롭게 도배하여 생활환경을 밝게 개선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을 새롭게 지원했다. 또한 교실 문과 세면대를 교체,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지점장 김용우) 직원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아동들을 위한 희망멘토로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8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인후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15명과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에서는 체험형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일일 은행원이 되어 체험용 통장개설을 처리하는 업무 및 실제 은행원들이 사용하는 금융기기를 경험해 보고 금융사기 예방 등의 다양한 참여 교육을 경험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 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의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은행원 직업 체험형 금융교육을 비롯 최신 핀테크 체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생균제' 중국 수출 지속 추진

농협사료 군산바이오는 지난 7일 생균제 6.5t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국 수출은 지난해 사드보복으로 인한 한·중 무역 침체에도 불구하고 4년째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생균제는 소·돼지 등 가축이 살아있는 미생물 균체를 섭취함으로써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 유기산, 비타민 및 항균물질들에 의해 면역증강, 악취감소, 소화 효율성이 높아지게 하는 제품이다. 아울러, 축종별, 기능별 용도에 따라 맞춤형 제조가 가능, 시중 생균제보다

살아있는 균이 10배 이상 함유된 것이다. 농협사료는 수출 촉진을 위해 지난 4월 중국 장사에서 열린 사료공업진람회에 현지 고객 300여명을 초청, 생균제 농락(Nonglac) 제품에 대한 기술세미나를 했다. 특히, 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공소그룹의 공소양유유한공사와 수출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군산바이오 장장 운영환은 "최근 중국 시장이 미국과 무역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수출



을 이뤄냈다"며 "향후 중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신기술·인력양성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저축은행 계좌에서 잠자는 1481억원 찾아가세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저축은행 계좌가 380만개, 금액으로는 14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고액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1207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3일부터 6주간 저축은행의 장기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원스톱 조회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한다. '내 계좌 한눈에'는 본인의 은행·사민금융(상호금융·새마을금고·우체국)계좌, 보험가입·대출내역, 카드발급정보를 일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달까지 일 평균 약 7만7000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미사용계좌 조회 서비스는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상품의 잔액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저축은행별, 상태별, 상품유형별 등 요원한 정보와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의 상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확인한 미사용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준법감서인 심의필·제 2018-다-37호 (심의일자: 2018. 1. 30 현재)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1588 - 4477
www.jbbank.co.kr